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돌봄·급식 차질 우려

오늘부터 3일간 파업

광주·전남 332개교 동참

초등 53곳 돌봄교실 중단

시·도교육청 비상근무 체제

광주·전남 114개 초·중·고 학부모들은 3일부터 자녀들의 도시락을 싸야 한다. 또 돌봄교실에 아이를 맡기는 53개 초등학교의 맞벌이부부는 조기퇴근하는 등 아이를 일찍 찾은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3일부터 오는 5일까지 3일간 총파업에 돌입, 광주·전남 332개 학교에서 급식제공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이중 118개 학교는 급식 대신 대체급

식이나 실습, 단축수업, 현장 체험 등을 실시하며 그 외 114개 학교 학부모는 도시락을 챙겨야 한다.

2일 광주시·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3일부터 시작되는 학교 비정규직 노조 총파업에 따라 광주에서는 공립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253곳 가운데 132곳(52%)이 총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7곳, 초등학교 69곳, 중학교 38곳, 고등학교 17곳, 특수학교 1곳이다.

전남에서도 국·공·사립 852곳 중 200곳(23.5%)이 파업에 동참한다. 유치원 6곳, 초 101곳, 중 73곳, 고 18곳, 특수 2곳 등이다.

영상사와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학교 비정규직 직원이 파업에 참가하면서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52곳과 62곳 등 114곳이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했다.

또 광주는 90곳, 전남은 12곳에서 빵이나 우유 등 대체급식을 제공하고 단축수업을 진행하는 곳도 광주 11곳, 전남 69곳이다. 기말시험을 치르는 학교는 광주 17곳, 전남 2곳으로, 전남의 나머지 55개 학교는 현장체험 학습과 요리실습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돌봄교실과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도 예고돼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학부모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전남지역 돌봄교실 운영 초등학교 357곳 중 51곳이, 광주는 152곳 중 2곳의 운영이 중단된다. 유치원 방과후과정도 중단되는 곳은 광주 6곳, 전남 3곳이다.

광주·전남지역 학교 비정규직노조가 2017년 이후 2년 만에 대대적인 파업에 돌입하면서 급식과 돌봄교실 등 운영에 차질

이 예상되자 시·도교육청도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

상황실을 운영해 주요 직종별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학교별 상황에 따라 대체급식과 단축수업 등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름철 도시락 지참식 식중독 우려가 있는데다, 도시락을 지참하기 어려운 가정형편의 학생 등을 감안하면 각종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광주에서는 학교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 3800여명 중 1500여명, 전남은 7500여명 중 1700여명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도와 정책 이행'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 '정규직과의 차별적 임금 개선을 위한 기본급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동참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장마 대비 공사현장 안전점검 2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용두동 R&D 특구 연결도로개설 현장에서 문인 복구형장이 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장마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

광주 남구 양촌동 상습침수 해소 배수량 2배 새 배수펌프장 준공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를 입었던 광주시 남구 양촌동에 신규 배수펌프장이 준공되며 주민들이 한시름 놓았다.

2일 남구에 따르면 74억원이 투입된 양촌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준공식이 이날 양촌 배수펌프장에서 열렸다.

이 사업은 지난 1982년 건설돼 노후화 등으로 제 기능을 못하는 기존 양촌 배수펌프장을 철거하고 배수 처리량이 더 높은 새로운 배수펌프장 조성이 주요 내용이다.

새 배수펌프장은 분당 배수량이 기존 384t에서 744t으로 2배 더 높고, 이물질 분리·제거를 위한 로터리식 제진기를 갖추고 있다. 영산강과 지석천의 합류 지점과 인접한 양촌동은 집중 호우로 인한 홍수가 발생할 때마다 농경지가 침수되고 배수 작업 역시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왔다. /김용희 기자 kimyh@

광주경찰청장 장하연·전남경찰청장 김남현 경찰 치안감 31명 전보인사

신임 광주지방경찰청장에 장하연(53) 경찰청 정보국장이, 전남지방경찰청장에 김남현(55)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장이 각각 임명됐다.

정부는 2일 광주·전남지방경찰청장 등 치안감 31명의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장 신임 광주경찰청장은 목포 출신으로 목포 문태고와 경찰대(5기),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1989년 경위로 경찰에 입문한 장 청장은 2009년 총경 승진 후 광주청 정보과장과 곡성경찰서장·경찰청 정보국 4과장·서울 성동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 2015년

경무관 승진 후에는 전북청 전주완산경찰서장, 전북청 제1부장 등을 거쳤고, 2018년 치안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정보국장을 지냈다.

김 신임 전남경찰청장은 강진 출신으로 광주 금고고와 경찰대(2기)를 졸업한 뒤,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 신임 청장은 1986년 경위로 입관한 뒤 2007년 총경으로 승진해 경찰대 경찰학교장·강진경찰서장·경찰대학 지방이전 추진단장·서울 광진경찰서장 등을 지냈다. 2014년 경무관에 승진한 이후에는 광

주청 제1부장을 거쳐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장을 역임하던 중 치안감으로 승진한 이후에도 추진단장직을 맡아왔다.

이번 치안감 전보 인사에서 김규현 광주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 보안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최관호 전남지방경찰청장은 핵심 요직인 경찰청 경무인사 기획관에 이력을 올렸다.

또 이규문 경찰청 수사기획관은 경찰청 수사국장, 이문수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장은 경찰인재개발원장, 이명교 서울청 수사부장은 충남지방경찰청장, 진교호 서울청 정보관리부장은 경찰청 정보국장, 진정



장하연 청장

김남현 청장

무 서울청 교통지도부장은 경남지방경찰청장, 이영상 서울청 생활안전부장은 경찰청 교통국장으로 각각 내정됐다. 역대 2번째 경찰청 여성국장이었던 이은정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은 중앙경찰학교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 뜨는 시각 05:22
해 지는 시각 19:51
달 뜨는 시각 05:33
달 지는 시각 20:21

썬크림 자주 바르세요

대부분 맑고 자외선 강하겠다.

광주	맑음	20/31	보성	맑음	18/28
목포	맑음	21/27	순천	맑음	20/30
여수	맑음	21/26	영광	맑음	19/28
나주	맑음	19/31	진도	맑음	19/27
완도	맑음	20/28	전주	맑음	18/31
구례	맑음	18/31	군산	맑음	19/29
강진	맑음	20/28	남원	맑음	18/31
해남	맑음	19/28	흑산도	맑음	19/25
장성	맑음	18/30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	북~북동	0.5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5	북~북동	0.5~1.5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동~동	0.5~1.5	북동~동	0.5~1.0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북동	0.5~1.5	북~북동	0.5~1.5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7:50	02:32
19:49	14:28	
여수	03:15	09:15
	15:18	21:56

◇ 주간 날씨

4(목)	5(금)	6(토)	7(일)	8(월)	9(화)	10(수)
☀	☀	☁	☀	☀	☀	☀
20/32	21/32	22/32	21/31	22/30	22/31	22/28

광주·전남 학교 방사능 재난 훈련 크게 미흡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에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광주·전남지역 초·중·고등학교의 방사능 재난대비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시민환경단체 '핵 없는 세상 광주 전남행동', '핵 없는 사회 시민모임'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재난대비훈련 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광주지역 초·중·고교(618개)는 재난대비 훈련을 학교 당 평균 9.38회 진행했고, 이 중 방사능재난 훈련은 0.17회였다. 전남지역 초·중·고교(1388개)는 학교 당 평균 6.07회 훈련, 방사능재난 훈련은 0.06회 진행했다.

이 단체들은 광주시교육청에 대해 재

난대비훈련 실적의 전국 평균(7.69회)보다 높지만 방사능 재난대비훈련 실적(0.17회)은 부족했다는 평가다.

또한 전남도교육청은 한빛원전이 영광에 자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가 없는 타사·도에 비해 매우 낮은 방사능 재난대비훈련 실적을 보였다

한빛원전에서 최근 10개월 사이 5건의 화재사고와 원자로 출력 급상승, 원자로 출력제한 오류, 격납건물 공극 발견 등 사건이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광주시·전남도교육청과 학교현장에서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

취임 1년 장석용 전남교육감, 전교조 긍정 평가 받아

취임 1년을 맞은 장석용 전남도교육감의 교육정책이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4~27일 조합원 5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장석용 전남도교육감의 정책과 행정에 대해 10

점 만점에 7.88점을 기록했다.

5점 척도 만족도 조사에서도 '학교 운영비 자율성 강화'(4.49점)와 '학교회계 자율성 강화'(4.27점),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4.23점),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4.19점)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박기용 기자 pboxer@

풍암동, 동부 센트레빌, 근린상가, 매매/임대

- 서구 풍암동 664-6번지, 아파트정문 앞 상가1층 101, 102, 109, 110호
 - 분양평수 50평, 실평수 36평
 - 현재, 대형 할인마트 입점중 (보 8천만원에 월300만원) 임대기간 만료후 월세 100만원 인상가능
 - 매매 - 9억원
 - 임대 - 보5천만원에 월세 400만원
- 문의. 010-6834-7400

